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교정전문가의 중요도와 출소자의 선호도 비교연구: IPA기법 적용

The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of Experts and Preference of Ex-prisoners on Rehabilitation Program in Korea : Application of IPA Method

김정현,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Jeong-Hyeon Kim(jh50points@gmail.com), Jung-Sik Gong(crime0824@daum.net)

요약

본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출소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응에 있어서 출소자가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보호사업 및 가족희망사업, 그리고 전문가가 중요시 여기는 바를 측정하고, 비교평가 하였다. 이를 위해 공단으로부터 보호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출소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보호사업에 대해 인식하는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범죄자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공단직원, 교정공무원으로 전문가 집단을 이루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보호사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PA기법을 통해 선호도와 중요도를 각 축으로 설정하여 사분면에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출소자와 전문가가 인식하는 출소자의 사회적응과 관련한 보호사업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와 함의를 바탕으로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출소자 | 사회적응 | 법무보호 | 보호사업 | IPA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recognition of ex-prisoners and experts on rehabilitation programs and family support programs by Korea Rehabilitation Agency, which plays a responsible role in promoting social reintegration. Estimation and comparison method was used to assess between the efficiency and the importance of the rehabilitation business which was respectively recognized by ex-prisoners and exper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ho have received the support from the agency were composed, and the effectiveness was identified. In addition, to measure the importance of the rehabilitation business, a group of experts were made up of professors, the agency employees, and correctional officers with expertise and experience of this field of reintegration and recidivism. Collected data were shown in quadrants by setting preference and importance on each axis through IPA.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reference and importance, and based on this result, the discussion was suggested in relation to the rehabilitation business and family support business.

■ keyword : | Ex-offender | Social Reintegration | Rehabilitation | Rehabilitation Program | IPA |

I. 서론

많은 범죄경력자들이 처음의 범죄행위로 인해 주위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스스로에 대해 낙인을 씌워 범죄의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피해발생으로 인한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그 이후 다시금 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범죄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데 있어서 시설 내 처우만으로는 석방 후 정상적인 삶을 재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대다수의 출소자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해있고, 가까운 관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녹녹치 않다. 열악한 상황을 혼자 헤쳐 나가기에는 힘이 들고, 따라서 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제공할 필요성은 많은 연구들이 시사하고 있다.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의 자립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단의 범무보호(갱생보호)는 출소자들이 사회복귀에 있어서 필요한 보호서비스를 갖추고 지원을 요하는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토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2009년 창업지원 신설, 2012년 심리상담 실시, 2013년에는 출소자 가족지원을 전담하는 가족희망사업을 추진하여 그 지원범위를 출소자 가족으로까지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가족희망사업은 가족이 교정시설과 외부의 연결다리가 되고, 출소 후 사회적응의 발판이 된다는 연구[1][2]들을 바탕으로 가족집단상담 및 자녀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출소자의 가족해체 방지와 가족관계를 회복,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3].

범무보호의 종류에는 숙식지원, 취업지원, 원호지원, 가족지원 등 진정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출소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삶의 기반을 닦아주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보호사업의 종류와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의 종류와 내용

보호사업	내용
숙식지원	안정된 숙식제공 서비스로 취업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알선	고용가능업체 알선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 및 자생력 함양을 목적으로 지원
창업지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출소자에게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성공창업과 경제적 독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
직업훈련	기술 훈련 및 자격취득 교육 실시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취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주거지원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 곤란 무주택 출소자에게 임차주택을 저렴하게 지원
원호지원	자립의지는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지원과 사후관리
심리상담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으로 출소 후 겪는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지원
허그일자리 사업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취업과정을 4단계(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취업성공, 사후관리)로 구분하여 지원
사회성향상 교육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본소양,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 지원
사전상담	수감 중인 출소예정자를 방문하여 출소 후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공단 사업 안내와 고충상담
가족희망사업	출소자 가정에 자녀 학업지원, 심리상담 및 가족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가정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사후관리 및 멘토링	범무보호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직원 또는 보호위원 등이 면접·통신·방문 등의 방법으로 가정·주거·교우관계 조정·개선 등 선행지도
기타자립지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탁 및 알선, 가족관계등록청상, 주민등록 재등록, 가족 찾기, 법률구조 및 의료적 시혜 등 지원
가족희망사업	내용
가족심화상담	1가구 이내 대상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문제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개인 상담과 2인 이상의 부부상담, 가족상담 일체
가족심리검사	대상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상담 및 프로그램 등과 동시 진행
가족집단상담	2가구 이상의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집단 상담으로 가족 간 집단 상담
가족교육	2가구 이상의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족이론교육으로 워크샵 및 강의 형태로 진행
가족캠프	2가구 이상의 대상자 및 가족이 참여하는 합숙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집단상담 진행 (부부캠프, 가족캠프, 청소년 캠프 등)
문화체험	2가구 이상의 대상자 및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로 문화예술체험, 레저성향 참가
자녀지원 프로그램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자 가족에게 자녀취업을 위한 물품 및 장학금, 입학금 등 지원

Note :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 주요사업 내용 및 이동훈 (2017). 공단 심리상담 및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p.57 참조

범무보호사업의 필요성과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4-12]. 이들 연구는 출소자의 사회적응 함양 및 재범방지의 목적으로 공단의 재정확충, 인력확보, 시민적 관심의 증대, 범무보호

의 위상 강화 등 공단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적·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소자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호사업에 대한 출소자들과 전문가들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반영한 논의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들이 본인 혹은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 등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고, 전문가들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보호사업을 비교분석하며, 이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호사업에 대해서 출소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층화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전국 지부지소에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출소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 300명(89.3%), 여자 36명(10.7%)이고, 연령의 경우 10대 10명(3.0%), 20대 41명(12.2%), 30대 60명(17.9%), 40대 124명(36.9%), 50대 75명(22.3%), 60대 이상 25명(7.4%)으로 40대~50대가 전체 59.2%로 비중이 높다. 이에 교정본부의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보면[13], 남성이 93.2%를 차지하고, 40대가 2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가 25.8%로 집계되어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실혼과 기혼은 105명으로 31.3%를 차지한 반면, 미혼은 40.2%, 이혼, 사별, 별거는 28.6%로 집계되어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68.8%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비율이 71.8%로 나타났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비율이 27.7%로 나타나 이들의 학력수준이 일반인들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환경을 살펴보면, 전세 및 자가소유는 28.6%로 나타났지만, 월세 혹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관에 거

주하는 경우가 70.2%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그리고 이들의 월 소득은 100만원~200만원 사이가 39.3%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이 33.3%로 그 다음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도 이들은 취약한 계층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출소자들이 선호하는 보호사업을 알아보고자 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이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 받은 보호사업 현황을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보호사업 참여현황

보호사업(참여현황)			
숙식지원	136	허그일자리사업	145
취업알선	77	사회성향상교육	43
창업지원	8	사후관리멘토링	40
직업훈련	122	사전상담	91
주거지원	52	가족희망사업	113
원호지원	92	기타자립지원	27
심리상담	92		

Note : 보호사업의 참여파악은 자기보고식으로 다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다음으로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보호사업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호사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 및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가들로 구성하였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직원, 법무보호의 연구를 위한 학술단체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소속 등의 대학교수 그리고 교정전문가에게 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였다.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분포로 50대가 70.6%로 가장 많았고, 40대 4명(23.5%), 30대 1명(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소자와 관련 직무경력으로 최소 7년에서 최대 32년으로 나타났고, 평균 21.12년으로 출소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속은 공단직원이 7명(41.2%), 대학교수 5명(29.4%), 교정공무원 5명(29.4%)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2.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출소자의 직업적 재사회화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수행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출소자의 직업적 재사회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14]」의 자료수집 시 모인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술한대로 층화표본방식을 토대로 전국적 표본을 수집하였고, 결측문항이 많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402부가 활용되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호사업의 선호도에 응답한 대상자들만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그 대상자는 336명이다.

보호사업에 관한 출소자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13개[표 1]의 보호사업을 제시하고, '자신 혹은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효과적이고 선호도가 높은 보호사업'에 대해 3개씩 다중응답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전문가가 인식하는 출소자에게 중요한 보호사업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호사업 별로 예를 들어 '숙식지원사업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7점 Likert 응답척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1)에서 '매우 중요하다'(7)까지 구성하여 응답을 요청하였고, 평균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IPA기법(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하여 출소자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보호사업과 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보호사업을 동시에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IPA기법은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에 대해 주로 소비자의 만족도와 중요도를 비교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1977년에 경영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Martilla와 James[15]가 개발한 것이다. 경영전략에서처럼 IPA기법을 통해 교정전문가가 인식하는 보호사업의 중요도와 출소자의 선호도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이를 시각화할 수 있어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IPA 기법이 효과적인 연구방법일 것이다.

IPA 결과 도표는 사분면을 통해 제시하였고, I 사분면은 중요도와 선호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한 부분으로 「유지 강화」로 명명하였다. II 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선호도가 낮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최우선 개선」으로 명명하였다. III 사분면은 선호도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중점 개선」으로 명명하였다. IV 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

도는 높아 「상대적 강점」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최우선 개선」영역은 출소자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을 통해 법무보호의 목적인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보다 함양시킬 수 있는 중요 영역이다. 각 사분면을 구분하는 가로축과 세로축은 보호사업이 어떤 영역에 속할지를 구분하는 지표로, 보호사업의 평가요소인 선호도와 중요도의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16].

III. 연구결과

보호사업의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사업 별로 선택된 응답횟수를 산출하고, 이를 총 응답횟수로 나누었다. 따라서 본 산출근거에 따라 나온 값은 값이 높은 순서대로 많은 응답자들이 선호한다고 밝힌 것을 뜻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보호사업은 7점 Likert 응답범주로 측정하였고,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선호도와 중요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보호사업별 선호도 및 중요도 평균

보호사업	선호도 평균	중요도 평균
숙식지원	.130	6.35
취업알선	.197	6.88
창업지원	.043	5.24
직업훈련	.118	6.53
주거지원	.125	6.71
원호지원	.080	5.82
심리상담	.054	6.41
허그일자리사업	.122	6.65
사회성향상교육	.037	6.06
사후관리멘토링	.020	5.82
사전상담	.011	6.47
가족희망사업	.018	6.18
기타자립지원	.019	5.35

전문가들은 취업알선이 평균 6.88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거지원의 평균이 6.71, 허그일자리사업의 평균은 6.65, 직업훈련의 평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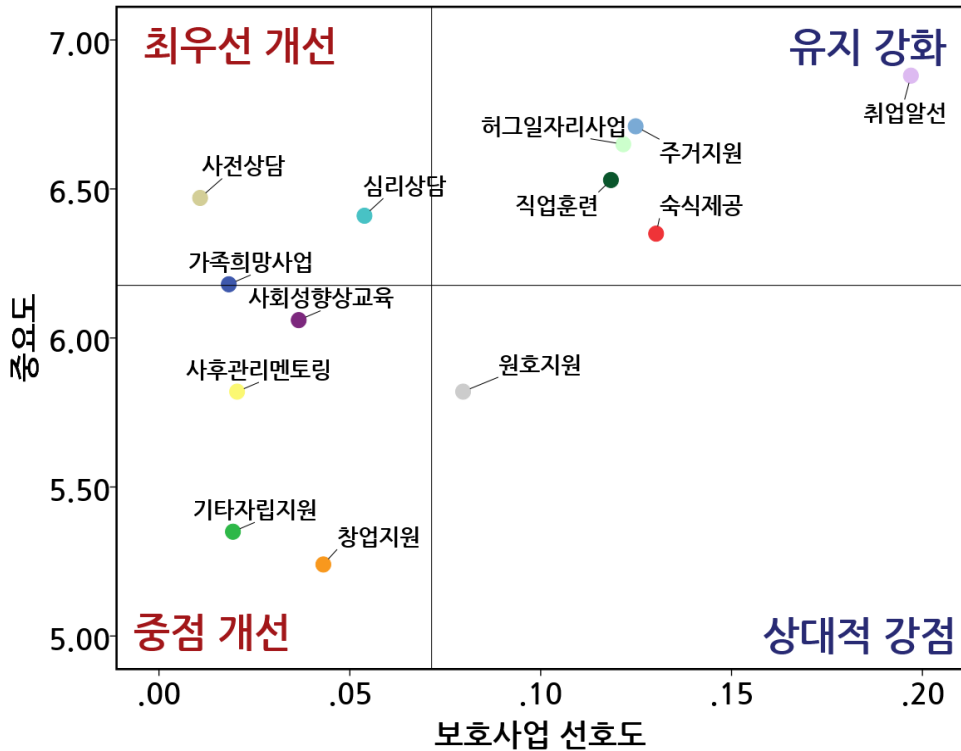


그림 1. 보호사업에 대한 IPA 결과

6.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은 출소자들의 취업과 관련한 보호사업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소자의 보호사업 선호도와 전문가의 보호사업 중요도를 비교하여 보호사업에 대한 정책적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IPA 분석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각 사분면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I사분면의 「유지 강화」 영역은 취업알선, 주거지원, 허그일자리사업, 직업훈련, 숙식제공이 나타나 출소자들도 선호하고, 전문가들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호사업들은 공단에서도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중요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현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면 되는 것을 뜻한다. II사분면의 「최우선 개선」은 사전상담, 심리상담, 가족희망사업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출소자들의 선호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의 경우 출소자의 사회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지속적이고

원만한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어서 출소자들이 이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IV장에서 제안하였다. III사분면의 「중점 개선」은 선호도와 중요도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으로 사회성향상교육, 사후관리 및 멘토링, 기타자립지원, 창업지원이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취업관련 보호사업, 사회정착 보호사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항목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IV사분면의 「상대적 강점」은 원호지원만 포함되었고,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고, 선호도는 높은 영역이다. 원호지원은 출소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호사업으로 사회적응 함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낮지만 출소자에게는 현실적 도움이 되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보호사업에 대한 선호도 및 중요도와 함께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2년에 가족희망사업이 출범하였다. 가족희망사업의 7개 세부사업[표 1]에 대해 앞서 보호사업과 마찬가지로 출소자의 선호도와 전문가의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가족희망사업의 선호도와 중요도의 평균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가족희망사업별 선호도 및 중요도 평균

보호사업	선호도 평균	중요도 평균
가족심화상담	.151	6.294
가족심리검사	.114	6.176
가족집단상담	.081	6.000
가족교육	.079	5.941
가족캠프	.151	6.059
문화체험	.192	5.765
자녀지원프로그램	.188	6.471

출소자의 선호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체험의 선

호도가 가장 높고, 가족교육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문가가 인식하는 가족희망사업은 자녀지원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6.471)을 보였고, 문화체험이 가장 낮은 평균(5.765)을 보였다. 이는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가를 즐기는 문화체험의 특성상 선호도는 높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회응에는 다른 심층적인 부분을 다루는 가족프로그램이 중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IPA 분석을 통해 선호도와 중요도를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각 사분면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I사분면의 「유지강화」 영역에서는 자녀지원프로그램, 가족심화상담이 포함되어 전문가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출소자의 선호도가 모두 높은 것을 의미한다. II사분면의 「최우선 개선」 영역에서는 가족심리검사만 포함되어, 전문가는 출소자의 사회응에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출소자의 선호도는 다소 낮다. III사분면의 「중점개선」영역에서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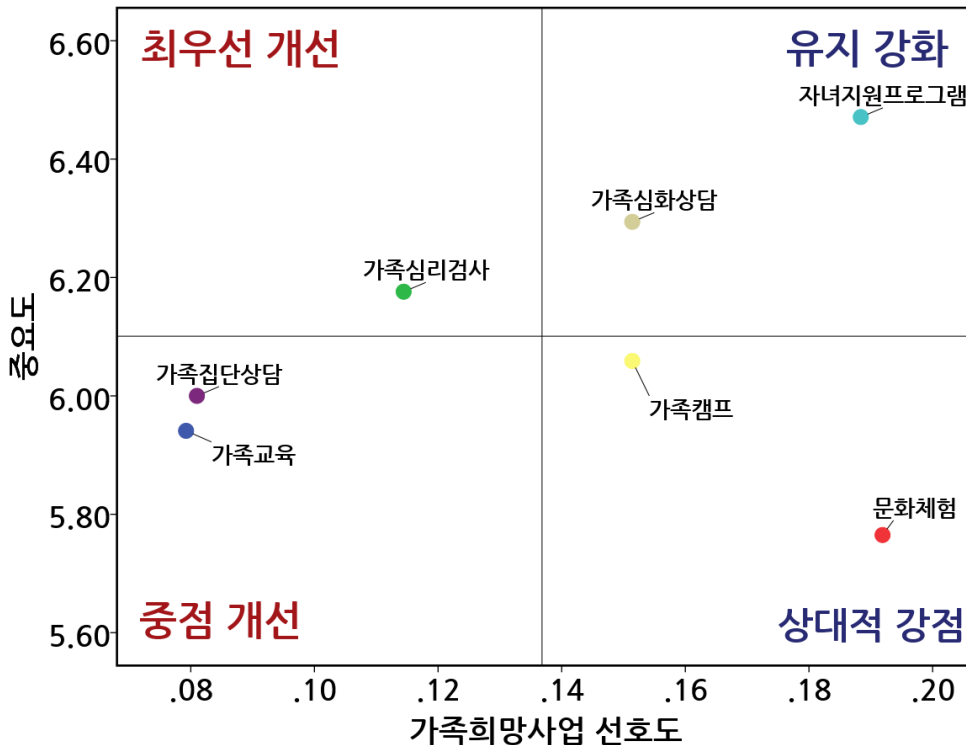


그림 2.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IPA 결과

죽집단상담과 가족교육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IV사분면 「상대적 강점」의 영역에는 가족캠프와 문화체험이 포함되었다. 이는 출소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매우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결론 및 논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보호사업에 대해 출소자와 전문가가 인식하고 있는 선호도와 중요도에 대해 IPA기법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출소자와 전문가 간의 보호사업과 가족희망사업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선호도와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집단의 입장에서 출현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공단이 주력으로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주거지원, 숙식지원 등은 선호도와 중요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지 강화」영역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전상담, 심리상담, 가족희망사업의 경우 전문가들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중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출소자들의 선호도는 낮게 나타나 「최우선개선」영역에 포함된다.

숙식지원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전문가의 중요도와 출소자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이를 「유지 강화」해야 하는 함의가 분석결과 나타났지만, 현재 공단에서는 이를 축소하는 추세이다. 숙식시설의 규칙강화와 자율성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지만, 숙식지원 대상자들은 개인·사회적으로 고-위험 집단이고, 출소 후 의지할 가족이나 지인 등이 이미 해체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율형 숙식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고-위험군은 이들의 특성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사회 내에서 무방비로 방치돼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약해질 수 있다. 법무보호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에 있으며, 법무보호의 개시가 1910년 인천구호원에서 출옥인들에게 숙

식을 제공하면서 시작한 만큼 숙식제공의 형태를 단계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가능한 오갈 데 없는 고-위험 출소자들을 더욱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최우선 개선」영역의 사전상담은 법무보호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향후 자립계획의 상담이 진행되어 전문가들이 인식하기에는 초기 공단의 관리체계에 유입되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지만, 출소자 본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주요사업들 보다 선호도가 낮은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또한, 심리상담의 경우 이동훈 등[3]의 연구에 따르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재보호 될 확률도 낮아지고, 사회적응에 효과적인 것을 입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상담의 효과성을 출소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취업알선이 허그일자리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허그일자리사업은 심리측정을 통해 출소자의 특성에 맞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특화된 취업전략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지만[17], 출소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당장의 취업처를 마련해 주는 취업알선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심리상담과 실질적인 직업훈련, 주거지원, 숙식지원 등의 보호사업과 연계하여 심리적 안정을 통해 보호사업을 추진한다면 심리상담에 대한 거부감은 감소하고, 보호사업의 효과성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희망사업의 경우 출소자들이 다른 보호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소자의 특성에서도 나타나지만, 연구대상자들이 미혼 및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상대적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양혜경과 서보람[1]의 연구에서 교정시설의 수감 중에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희망사업이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다. 확대방안으로 범죄자의 가족은 사회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거지원, 자녀지원, 취업지원 등 그 범위를 가족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수용자들이 석방 후 돌아갈 기반을 만들어주어 사회적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가족 중심 지원 프로그램(Family-Centered & Support Program)과 가족 정의 프로그램(family justice program) 등을 통해 범죄자가 수감되어 있을 때부터 개입하여 가족 간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의 수용단계에서부터 가족에 대한 주거, 취업, 생활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범죄자가 출소 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한다면 출소자의 가족관계회복과 사회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가정기능의 회복이 중요하고, 이를 주관하는 가족희망사업의 7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출소자와 전문가의 인식을 IPA기법을 통해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자녀지원프로그램과 가족심화상담이 공통적으로 두 집단에서 선호도와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유지 강화」영역에 포함되었다. 이는 이 프로그램들이 출소자와 가족의 관계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촉진 작용을 하고, 사회적 지지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10].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문화체험과 가족캠프가 선호도 측면에서 높게 나타나 「상대적 강점」영역에 포함되었다. 이는 사회적응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인식하기에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출소자들이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이 사회성향상 교육,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때에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출소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최우선 개선」영역에는 가족심리검사가 나타났는데, 이는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출소자들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출소자들은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선호도가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가족캠프 및 문화체험 등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출소자들이 선호하는 보호사업과 전문가들이 이들의 사회적응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보호사업 간의 관계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앞으로의 보호사업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

길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참고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출소자의 선호도는 보호사업 간의 상대적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호사업에 대한 중요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이 모든 보호사업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된 것이 아닌 본인과 주변 출소자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사업에 대해 선호하고 효과적인 것을 제시된 보호사업 중 다중 응답하도록 연구가 설계되어 진행되었다. 셋째, IPA기법을 통해 단편적으로 보호사업의 선호도와 중요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 보호사업 간의 쌍대비교를 실시한다면, 보호사업에 대한 인식은 더욱 뚜렷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보호사업에 대한 출소자와 전문가의 개괄적인 인식 비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연구로 각 보호사업을 참여한 출소자의 경험과 인식을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그렇다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보호사업의 효과를 더욱 면밀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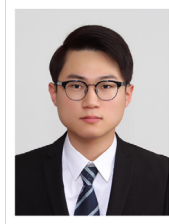
- [1] 양혜경, 서보람,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63호, pp.115-144, 2014.
- [2] 이동훈, 박성현, 조현주, 박선영,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모델 정립과 모델 유형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구용역과제, 2014.
- [3] 이동훈, 김보라, 강수운, 김진혁, *공단 심리상담 및 가족희망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구용역과제, 2017.
- [4] 홍봉선, “출소자 복지증진과 갱생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 교정연구, 제14호, pp.143-174, 2002.
- [5] 정진연,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23호, pp.185-219, 2004.
- [6] 이신영,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38호, pp.139-161, 2008.

- [7] 박병식, “한국갱생보호사업의 현안과 해결방안,”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5권, 제1호, pp.195-216, 2011.
- [8] 배임호,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발전방향,” 교정연구, 제60호, pp.113-134, 2013.
- [9] 최응렬, “한국 갱생보호사업의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61호, pp.7-35, 2013.
- [10] 이인곤,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가족지원(복지) 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3호, pp.153-180, 2015.
- [11] 박상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73호, pp.115-140, 2016.
- [12] 박경규, “법무보호복지의 현황과 개선방향,” 법무보호연구, 제5호, pp.109-143, 2018.
- [13] 교정본부,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법무부, 2018.
- [14] 박광원, *출소자의 직업적 재사회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15] J. A. Martilla and J. C. James,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Vol.41, No.1, pp.77-79, 1977.
- [16] H. Oh, “Revisit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urism management*, Vol.22, No.6, pp.617-627, 2001.
- [17] 민원홍, 원일, “출소자를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제47호, pp.1-19, 2017.

저 자 소 개

김 정 현(Jeong-Hyeon Kim)

정회원



- 2019년 2월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심리학석사)
- 2018년 12월 ~ 현재 : 한국심리과학센터 연구원
- 2019년 3월 ~ 현재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

〈관심분야〉 : 범죄예방, 법무보호, 범죄심리

공 정 식(Jung-Sik Gong)

정회원



- 1995년 8월 : 고려대학교 상담심리학과(교육학석사)
- 2005년 8월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심리학박사)
- 2018년 4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관심분야〉 : 범죄심리, 피해상담, 안전문화